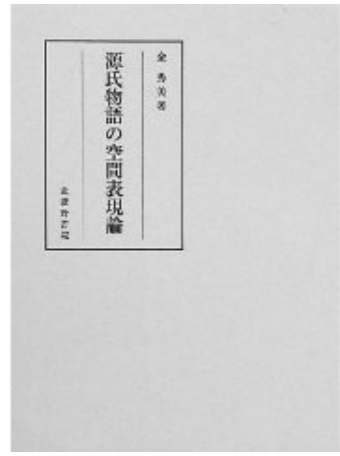


[서평 1(한국어)]

## 김수미 저 『겐지모노가타리 공간표현론』

## 〈책 소개〉

일본 헤이안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인 『겐지모노가타리』는 <공간>에 관한 서술이 매우 애매하고 난해하다. 그 때문에 종래 연구에 있어서도 다르게 해석되는 곳이 많으며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텍스트 표현, 인용, 話型, 지역, 주문화, 건축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검증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견해를 제시하면서 <공간표현>이 모노가타리 전개에 영향을 끼치며 작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음을 밝혀나가고 있다.



본서는 『겐지모노가타리』에 있어서 ‘모노가타리 공간’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작품전체의 ‘해석’에 어떻게 환원되는지 등의 문제를 논한 것으로, 책 전체가 이렇게 일관된 테마로 쓰여져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별로 예가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신선하고 획기적인 연구서이다.

저자는 <모노가타리 공간>을 ‘모노가타리 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등장인물이 존재하는 <장소(place)>’(7페이지)라고 정의하고 그 <모노가타리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인물의 이동, 주거내의 가구, 어떤 특정한 장소 등)를 <모노가타리 공간>으로 분석하는 것에 의해 큰 줄거리, 등장인물의 심리, 발언 등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작품자체의 메시지가 보인다고 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장소라는 설화적 상상력이 존재하며 이것은 방랑의 여인 다마카쓰라가 돌아가야 할 장소를 찾는 것이 주 내용인 다마카쓰라 이야기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논한 제1부 제5장, 오노산장에서 유기리와 오치바노미야의 이동장소 분석을 통해, 거부하는 오치바노미야를 쫓는 유기리의 <폭력성>을 밝힌 제2부 제1장 등 저자는 <공간표현>에 착목하여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어지는 것은 건물 내부의 장소와 그 곳을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을 서술한 표현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힌 점이다.

이 외에도 헤이안시대의 문단속 도구인 ‘쥬’와 ‘가케가네’에 대해서 그 차이를 명확히 논한 제3부 제2장 등 본서는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본서에서는 종래에 지나쳐버리기 쉬웠던 <공간표현>의 표현성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 작품의 다음 전개에 대한 암시와, 때로는 표층과는 상반되는 의미를 내포하는 다층적인 작품세계 등, <공간표현>이 갖고 있는 풍부한 의미를 실로 매력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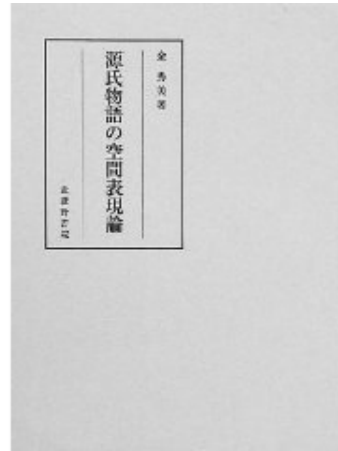
구리야마 모토코(栗山元子),  
지바경제대학(千葉經濟大學) 비상근강사(非常勤講師)

## [書評 1(日本語)]

## 金秀美著 『源氏物語の空間表現論』

## 〈著書紹介〉

日本平安時代の代表的な作品である『源氏物語』は、その〈空間〉に関する叙述が非常に曖昧で難解である。そのため、従来の研究においても解釈が分かれるところが多く、諸説が存在する。本書はそのような問題をもう一度取り上げ、テキスト表現、引用、話型、地域、住文化、建築などのような多様な分野の方法論を駆使し、論じる。このような作業によって、従来とは異なる見解を提示しつつ、〈空間表現〉が物語の展開に関与し、物語を総体的に理解するのに重要なキーワードになっ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く。



本書は『源氏物語』における〈物語空間〉がどのように表現されているのか、またその表現が物語全体の〈読み〉にどのように還元されるのかといった問題について論じたもので、一貫してこうしたテーマで書かれた書は他にあまり類を見ず、非常に新鮮かつ画期的な視点からの研究書となっている。

金氏の定義する〈物語空間〉とは、「物語の作者により作り出された登場人物が存在する〈場所〉(place)」(七頁)の謂であり、その〈物語空間〉を構成する様々な要素(人物の移動・住居内の家具・ある特定の場など)を〈空間表現〉として分析することで、物語の主筋や登場人物の心理・発言などを追うだけでは捉えきれない物語の放つメッセージが浮かび上がってくるのだとする。

たとえば「失ったものを取り戻す」場としての「市」という説話的想像力が、さすらう姫君・玉鬘の帰属する行方探しという玉鬘物語の結構に影響を与えていることを論じた第一部第五章や、小野山荘での夕霧と落葉宮の移動場所を辿ることで、落葉宮を強引に連れまわす夕霧の〈暴力性〉が明らかになると論じた第二部第一章など、〈空間表現〉に着目することで、金氏は新たな読みの可能性を切り開いてみせてくれる。中でも特記すべきは、建物内部の場やそれらをどのように移動するかをめぐる表現が、物語を読み解く上で大きな意味を持っ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された点にあるで

あろう。

この他、平安期の戸締り具である「じやう」と「かけがね」についてその違いを明確に論じた第三部第二章など、本書が学界に寄与するところは大きい。従来見過ごされがちであった〈物語空間〉の表現性に光を当て、続く物語の展開を暗示したり、ときに表層で語られていることに反する意味を内包して多層的な物語世界を形成するなど、〈空間表現〉の担う豊かな意味を実に魅力的に提示して見せてくれるのが本書なのである。

栗山元子(千葉経済大学短期大学部非常勤講師)